

황무지에 새움 틔우는 봄의 움직임

일간지와 광고전단을 활용한 출판광고 지상전 ④

한국 문학의 미래
문학동네
www.munhak.com

왜 문학동네 사람들이 모였을까

지금은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와 미래를 열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의 팬들

한승원 선생 이야기
여기서 '스님'의 울림을 품은
이 선생이란 말에 취해 있는
스님들이, 독자들과 일화를 품
어롭게 재난다.

해산 가는 갈

한승원 선생을 주의 깊게
읽으셨던 어제의 청인동행의
평가가, 독자들에게 깨닫게 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에 광
기와 박수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불교학자 경정이

포구

한승원 정관수설
제회 화재문학상 수상작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까마

한승원 정관수설
사람의 지고지순한 아름다
움이 유통되는 신학적 상상력
으로 노래한 소설

초석

이제껏 소설을 주의 깊게
읽으셨던 어제의 청인동행의
평가가, 독자들에게 깨닫게 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에 광
기와 박수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불교학자 경정이

해산 가는 갈

한승원 선생을 주의 깊게
읽으셨던 어제의 청인동행의
평가가, 독자들에게 깨닫게 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에 광
기와 박수하고 있는 것은
인도의 불교학자 경정이

포구

한승원 정관수설
제회 화재문학상 수상작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까마

한승원 정관수설
사람의 지고지순한 아름다
움이 유통되는 신학적 상상력
으로 노래한 소설

외단방

신경숙 정관수설
제회 화재문학상 수상작
신경숙 선생이 깨닫게 된
그리고 평생동안에 서로 존중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각
각 도자에서 베네치아 별처럼
살고자고 있다.

깊은 품

신경숙 정관수설
제회 화재문학상 수상작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열방

이제껏 정관수설
제회 화재문학상 수상작
예술에 자기 관계를 전화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문학동네 작가 사인회

오늘(4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4시까지
교보문고 매장

예언의 도시

원하는 장관수설
제2회 문학동네상상 수상작
처음부터 대비력을 갖춘 예언과
화이 김민 스피디한 문제를
마시면서 수준을 달리 끌어올
린다.—교보문고 사내부

**화랑과 시련의 희망에 살아
하고 배운다는 사람들의 연
기로서 깊은 물건과 감동을
준다.—오늘날 대사부**

**자료 전 국립 칭기한 문장
과 불제작이야 송송이. 그것을
충전은 그 자체였던 서정과
문학적이며, 개인의 삶의
정체에 대한 신념은 소설의
정체로 소화되며 고려하게
될 수 있는 언란학적 성격을
갖는다.—종합문화재단**

마요네즈

전해신 정관수설
제2회 문학동네연작가상 수상작
사과와 흰 우아한 차운으로
제작된 대형 사과와 대안 남아포른
한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정희 전관수설
제1회 문학동네연작가상 수상작
이후으로, 거대한 인간관에게
와 부끄러워하기 이전을 드러나
하고 이전보다 문제로 활성화.
앞의 90년대를 살피는 시선!

불로서 안경원

조승한 첫 소설집
조경호가 조승한은 아니고 서정
에 서로를 조망하는 듯한
술진 강정진인 작품!

호흡

김정희 첫 소설집
로님의 고지와 김재현의
모모, 김현정의 꿈처럼 시가
에게 애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하고 긴
기다리며 사랑하는 미시를
가져내며 사랑방의 미시를
가져내고 고고스럽게 한다.

염소를 모는 여자

진강은 선집
제1회 한국필립문학상 수상작
지루한 결혼생활의 노여움
과 인생을 나아가는 내면의
여와 강해인이라는 한상역
한기기와 함께 결혼을 무기로
기여하는 달콤한 시선!

타인에게 말 걸기

온희정 소설집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한승원 선생과 함께 살았던

· 문학동네의 작가 사인회광고 '왜 문학동네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커피와 함께 쟁쟁한 작가들의 사진과 작품목록을 실었다.
출판사의 책광고 중에서 새로운 형식이 아닐 수 없다. 행사와 광고,
퍼블리시티가 함께 상승효과를 기진다. (조선일보 4월 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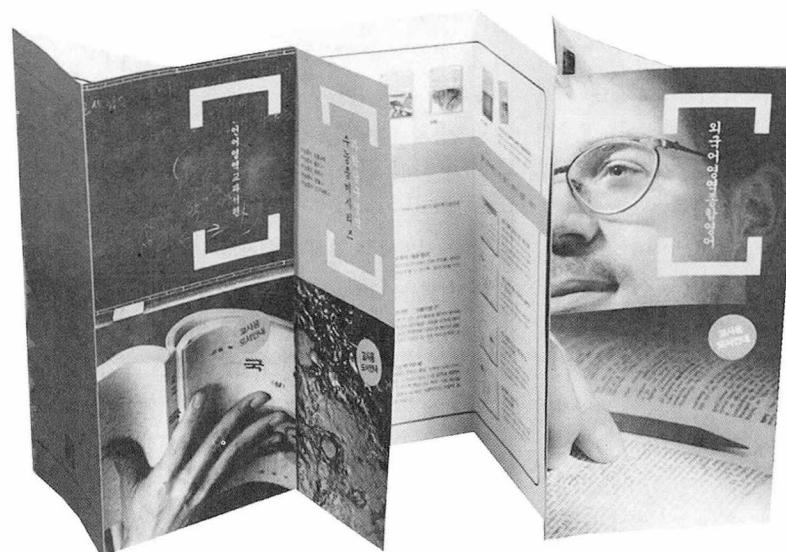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우리에게 엘리어트의 식구가 이렇게 절실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출판계도 예외가 아니다. 불황의 여파로 지난 연말부터 인쇄업계와 도매상의 부도와 대규모 출판사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이제 이 도미노 현상은 많은 출판사들에도 밀어닥쳐 부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황무지 속에서도 새움을 틔우는 봄이 온다. 요즘 출판계 역시 안팎의 아픔을 딛고 거듭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출판사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출판사의 특성을 살린 광고와 이벤트, PR 등 다방면에서 보여지고 있다.

'문학동네'의 경우는 지난 4월 4일 교보문고 매장에서 '문학동네 작가 사인회'를 가졌다. 출판사의 자산이 작가를 비롯한 저자들이라면 이 출판사는 그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시 힘을 복돋우는 행사를 가진 셈이다.

이벤트는 뉴스를 만든다. 훌륭한 이벤트는 언론을 통한 퍼블리시티 (publicity)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PR 개념이 강한 이 행사는 단순한 판촉행사가 아니라 독자와 출판사, 서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광고와 더불어 효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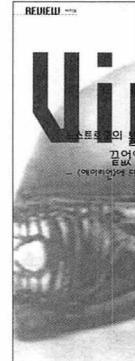
이번달 광고의 특색 중 하나는 단행본 이외에 계간지 정기구독을 유도하는 광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출판사가 출혈하다시피 제작해온 계간지들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폐간되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자구책을 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구독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관심유도를 위한 엽서 제작, 광고 등 다양한 노력들이 눈에 띈다. <마정미>



· 디딤돌의 교사용 도서안내 리플릿

언어영역교과서편, 외국어영역 종합영역, 과학탐구영역으로 분류한 수능콤비시리즈 교재를 실었다.
수능시대에 맞는 교사용 광고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3단으로 접지한 앞면은 2단으로 나누어 모노톤의 사진을 실었고 색채와 편집에 통일성을 기했다.





• 재출간되는 REVIEW의 광고엽서.

Video, Book, Music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주요 기사들을 담았다. 엑서 앞면은 이미지 컷과 자료사진, 빌문을 실었고 뒷장은 정기구독 신청서로 온라인 입금계좌, 정기구독 및 통신판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아 서점가에 배포하고 있다.

• 청년사의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광고. 삼국시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조명한 이 책은 '들썩들썩 벽화 속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카피에 맞추어 비주얼도 벽화를 따서 구성했다. 기마인이 활 대신 책을 펴고 있는 그림이 재미있다. (한겨레신문 4월8일자)